

12 정탐꾼



나레이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머무는 동안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

불과 며칠 전에 십계명을 받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금송아지님을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금송아지님 최고~!!

나레이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려는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들은 모두 죽게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며 율법을 공부하고 그 뜻을 기억하는 성경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막위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따라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땅 바로 옆에 펼쳐진 바란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란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백성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땅을 꼼꼼히 살피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금지막한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1

이 빨간 열매를 좀 봐봐 정말 탐스럽지?

백성1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먹어봐도 되나?

정탐꾼1

먹어봐~ 먹어도 되지~

백성1

와~ 맛이 끝내주는구만~

정탐꾼1

그 땅에 가면 이런 열매가 아무데나 있어 땅이 아주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좋아!

백성들

우와! 살았다 살았어! 우와~~

정탐꾼2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놈들이 엄청 세보이던데

정탐꾼3

그리고 길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도 거인같던데?



백성2

뭐야? 그림의 떡이구만?

괜히 거기에 갔다가 우리 맞아죽는거 아니야?

백성3

아니 뭐야.. 이럴거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성경공부는 왜 했는데?

갈렙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곳을 점령해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백성2

아 그게 말이 쉽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

백성3

그러고 보니까.. 그 땅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땅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게 좋은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탐꾼4

아니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힘이 세보이는 사람들이

널렸어. 다 힘센 거인들이야 거인~

백성4

하아... 그냥 애굽에 있을걸~ 괜히 모세말만 듣고 나와서

이게 뭐야. 이건 처음부터 너무 무모했어.

에잇 애굽으로 돌아가고싶다.

백성2

그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모세말고 다른 사람 세워갖고 빨리 가자!

이봐요!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

백성들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갈렙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 곳을 차지해야만하고 차지할 것입니다.

백성1

조용히 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당신들 그게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할 말인가요?

백성2

당신들 우리가 그 곳을 못 봤다고 무시합니까? 무시하냐고요!?

백성3

저 놈들 확 죽여버릴까!? 확 죽여버리자!

백성들

죽이자! 확! 우리를 속여? 이놈들이!

나레이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바로 그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이 백성들에게 온갖 표적과 이적을 다 보였는데

어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고집 세고 악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없애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나레이션

실제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려운 일이 생기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즉각심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며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고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가나안땅을 향한 새로운 생명들이
서서히 태어나고 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